

‘스페이스X’ 115조 달러 몰릴까... 자금 이동에 증시 ‘흔들’

오는 12일 나스닥 입성

공모가 135달러... 기업가치 2716조 코스피 급락, 스페이스X 영향 추정 상장 성공 시 신규자금 촉매제 전망



오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등판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나스닥 시장에 등판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시장은 세계 증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예상된다. 투자 자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내 증시도 그 영향권에 들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고 오는 12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 주식 수는 약 5억5560만주다. 이를 적용한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약 2716조원)에 달한다. 완전 희석 기준으로는 1조8000억달러를 웃돈다. 조달 규모도 압도적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7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294억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 ‘1.8조 달러 블랙홀’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스페이스X가 기존 인공지능(AI) 성장주에 퍼져있는 자금을 얼마나 흡수할 지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근 1년간 31% 넘게 상승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LS증권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8000포인트에서 1만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와 인플레이션, AI 투자 사이클 변화 가능성과 함께 스페이스X 상장을 대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꼽았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AI 성장 사이클이 유지되고 개인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대형 IPO 이벤트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가파른 신고가 경신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스닥100 편입 시점도 자금 흐름을 바꿀 변수다. 나스닥이 최근 도입한 대형 공모주 대상 ‘팩트 엔트리’ (조기 편입) 제도를 활용하면 스페이스X는 상장 후 약 15거래일 만에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새로 풀리는 주식이 전체의 3~5%에 불과해 지수 추종 펀드의 의무매수 규모가 약 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스페이스X를 신호탄으로, 하반기 오픈 AI-엔스룩 등 초대형 비상장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등판하는 ‘IPO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 세계 증시의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 세 기업이 조달하려는 자금만 약 2000억 달러, 합산 기업가치는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월가 투자은행(IB) JP모건은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 지수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자’가 미국 대형 기술주(빅테크)에서 950억달러를 빼낼 것으로 추산했다. 상장 후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2조달러에 이르고 주식 절반이 유통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우리가 현실화하면 미국 빅테크는 물론이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성장주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스페이스X 투자 위한 차익 실현 관측도

지난 5일 코스피는 5.54% 급락한 8160.59에 마감했다. 장 초반 낙폭이 7% 가까이 커지면서 장중 8038까지 후퇴하는 등 8000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8000억 원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동안 69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20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61조원)와 SK하이닉스(42조원)가 103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를 위해 최근 글로벌 1위 수준의 금등세를 보인 코스피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115조원 블랙홀’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이 8조달러를 웃도는 등 대기성 자금이 충분한 만큼 시장 전체를 흔들 수준의 수급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신규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주산업과 AI를 중심으로 성장주 투자 열기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스페이스X 상장을 두고 제기되는 폭락론은 과도하다”며 “대형 IPO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주식시장으로 추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공급이 늘어나는 형국에 가깝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자금 이동에 따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의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IPO에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공모 청약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일본과 스위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일반 대상 ‘공모(Public Offering)’ 가능 국가로 포함됐지만, 한국은 기관·전문투자자 중심의 ‘사모(private placement)’ 방식만 허용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내수부진·고금리에 자영업자 ‘한계’... 개인회생·폐업 늘어

빚 갚기 어려운 사회

③ 내몰리는 취약차주 <끝>

생활밀착형 업종 소비 위축 직격탄 개인회생, 지난해 대비 13.5% 늘어 연체율 1.8%로... 폐업 100만명 돌파

#.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정모(54)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시기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로 버텼지만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빚은 수억원대로 불어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지만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다.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이마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절차를 찾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권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인콰이션 “연체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잠재부실”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5만50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8513건)보다 13.5%(6555건)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4년 4월 4만4426건에

서 ▲2025년 4월 4만8513건, ▲올해 4월 5만50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것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 속에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늘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GF F 고용이슈리포트 2026-01호’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 위기는 소비 부진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 금리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평균 0.9%에 그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됐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것이다. 음식점과 주점, 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온라인 쇼핑 확산 역시 오프라인 상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배달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면서 전통적인 골목상권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금융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대출 규

모는 2020년 1분기 701조원에서 2025년 3분기 1072조원으로 370조원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차입금이 고금리 국면과 맞물리면서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폐업도 늘고 있다. 국제청 국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비용 증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원이 사라진 가운데 채무만 남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



물가 상승률 3%대...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힘받나

채권시장도 ‘출렁’... 민감도 커져 기준금리 2.75%로 인상 소수의견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면서 채권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연 2.50%에 묶여 있지만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금리는 한은의 인상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월 2.6%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다.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급등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이 국내 물가로 전이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셈이다.

근원물가도 한은의 부담을 키웠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같은 폭으로 올랐다. 물가압력이 일시적인 석유류 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고 기초적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다.

채권시장도 물가와 한은의 패괴적(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 선호) 메시지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90%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10.6bp 상승한 연 4.174%, 30년물은 12.7bp 오른 연 4.133%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한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방향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주형 기자 gh471@

엔비디아, 韓 AI 기술센터 설립도 박차

>> 1번 ‘젠슨 황, 네이버 등...’서 계속

국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AI 게임 개발과 시뮬레이션, 피지컬 AI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0월 황 CEO 방한 당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차기작 ‘아이온 2’와 ‘신더시티’를 선보인 바 있다. 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과도 회동했다.

황 CEO는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고, 서울대 AI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한 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한 뒤 당일 늦은 오후 또는 9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비디아는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에 나선다. 엔비디아는 최근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센터 소속 피지컬 AI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채용 공고를 올렸다. 채용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다. 황 CEO는 “한국의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 공학자들을 채용 중이며 이들은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며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아낀다면 이곳에 일하러 오라고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